초등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지원

도교육청, '두근두근 1학년' 교재 발간… 활용 방안 안내

학교생활 · 놀이하기 · 노래와 율동하기 등 내용 다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 교재와 웹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초기 적응활동 교재인 '두근두근 1학년'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및 웹 콘텐츠를 개발, 도내 각 초등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신입생들의 입학 초기 학습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학생용 '두근두근 1학년'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는 △새롭게 만나는 우리학교 △더불어 행복한 우리학교 △배움이 즐거운 우리학교 등 총 3개 분야, 39개 주제로, 선생님들이 학생 발달단계, 학습 준비도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습차시에는 입학식 참여, 등하교 안전, 우리 교실, 학교 한바퀴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에서부터 색칠하기, 놀이하기, 종이접기, 노래와 율동하기 등 초등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다채로운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웹콘텐츠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http://first.jbedu.kr/)에 탑재, 학생이 학교와 가정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보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은 "1학년 선생님들이 학급의 여건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해 충분히 재구성해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입학 초기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8일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열었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운영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5 · 18 가치 부정 우려 불식토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뜻 모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감 소관 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5.18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한편, 제89회 총회는 3월 23일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임석인 박사과정생

BK21 우수 '교육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임석인 박사과정생(나노융복합 에너지 혁신소재·부품 인재양성사업단, 지도교수 정광운)이 2022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참여 인력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표창은 4단계 BK21 사업의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인재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석인 박사과정생이 참여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전국에서 7명이 선정됐고, 전체 578개 교육연구단 참여인력 중 24명만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임석인 박사과정생은 2017년부터 BK21 플러스사업 및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해 반응성 메조겐 및 염료 기반 스마트 광학 필름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재료공학 분야 최상위 논문인 Advanced Materials(IF: 32.086, 상위 2.12%)에 제1저자로 게재했다. 특히 학위과정 중 5편의 주저자, 21편의 공동저자 등 총 2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5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등 논문과 특허에 있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임석인 박사과정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으로 연구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었다. 항상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정광운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사업단 참여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연구하는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4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 개발 상호협력 협약

19일 전라감영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권 모빌리티 산업 발전방향 모색

전북대, 전북도 · 전주시 등과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 포럼

전북대학교 LINC3.0사업단 친환경미래모빌리티센터는 지난 17일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LINC3.0사업단 친환경미래모빌리티센터(센터장 이덕진)는 지난 17일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인공지능을 기반 모빌리티 분야 기업과 대학 간 긴밀한 협업과 지원을 통해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캡틱종합기술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충북대 및 가천대, 그리고 ㈜스프링클라우드, 엠파워, 에코프로틴, 알에스티, 티앤지, 모라이 등 기업관계자 등이 함께해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협력 강화 및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북의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육성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전략기획단 노윤식 단장의 특강과 '자율주행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주제로 한 충북대 LINC3.0사업단 스마트카ICC 기석철 센터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덕진 센터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 그리고 타 권역 대학, 기업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며 "전북대학교 LINC3.0 사업단 친환경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평생교육사협회

무주지회와 교류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북무주지회(회장 김천순)가 교육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18일 박성태 총장과 김천순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학습권 향상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사 양성, 실습, 진로 등을 위한 상호 협력과 더불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초청 강의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태 총장은 "자리이타 정신으로 양 기관이 우호 관계를 돈독히 유지함으로써 공동 관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천순 회장은 "원광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돼 앞으로 의미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며 "협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석대, 평생지도교수 상담경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

아동복지학과 김소현씨 '대상'

유아특수교육과 우지훈씨 등

3명 '최우수상' 수상받아

우석대학교가 19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2022학년도 평생지도교수 상담경험 수기 공모 시상식을 연 뒤, 남천현 총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마련한 2022학년도 평생지도교수 상담경험 수기 공모전에서 김소현(아동복지학과 4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수상 학생 등이 참석했다.

김소현 학생 외에도 우지훈(유아특수교육과 3년)·박시안(간호학과 4년)·서원영(심리학과 3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김승희(간호학과 4년)·전진(유아특수교육과 3년)·이두나(약학과 1년)·남가을(국어교육과 3년)·김주은(특수교육과 2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평생지도교수제의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교수와 학생 간 정기적인 상담 확산으로 소속감과 유대감, 대학생활 적응력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천현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평생지도교수들과 함께 한 상담을 통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대학생활과 인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중학교 배정 오늘 발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20일 '2023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주 관내 중학교 진학 대상자는 총 6,908명으로, 작년 대비 497명이 증가했다. 이중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중대질병대상자, 다자녀 가정학생, 장애부모봉양학생 등 490명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추첨 배정된다.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1지망 배정률이 91.43%로 전년도에 비해 0.12%p 감소했으나, 3지망내 배정률은 99.65%로 전년도보다 0.52%p 증가했다.

한편 배정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jje.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특히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26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이만수 교육장은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 가운데, 학생 수용여건을 고려한 학급당 정원을 탄력적용하는 등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병자호란 이후 척화파 이경여에 대한 연구 기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백강집' 완역 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백강 이경여의 문집 '백강집'을 완역, 출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백강집'은 이경여의 아들인 이민서에 의해 1684년 간행됐다. 이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연구책임자 김건우)은 1684년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총 5권으로 완간했다.

이번 '백강집' 완간은 병자호란 이후 척화파 인물 중 한 명인 이경여라는 인물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은 고전의 대중화와 지역의 번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5월 설립됐다. 이후 2017년 12월 '대형거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돼 매년 사업비와 출판비를 지원받아 호남권 문집 9책을 연간 번역 발간하고 있다. /장은성기자